



나눔

희망을 지피는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Franciscan Missionaries of Mary

2024. 가을(Autumn)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수녀원 가족한마당

일시: 2024. 9. 28. (토) 11:00~15:00

일정: 미사(11:00), 식사, 아나바다 장터.

장터: 의류, 수제직물(매트, 컵 받침) 및 수공예품, 캘리그래피,
목주(구슬, 매듭), 천연염색 홀이불, 밀랍 초, 친환경 비누,
퀼트, 밑반찬 외.

판매: 현금판매(잔돈준비), 카드결제 안 됨.

장소: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수녀원(가리봉동)

▶ 내비게이션 검색 : 성프란치스코장애인종합복지관

협조 : 시장바구니, 반찬통, 개인 텀블러 준비

대중교통 이용(주차공간 부족)

문의: 010-2821-8174(후원 담당자)

* 참석하실 분은 9월 6일까지 꼭 연락해주십시오. (식사 준비를 위해)



사도직 현장에서(디딤돌-사별가족 모임)



최남주 베로니카 수녀

사별자들을 동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호스피스 교육을 받았다. 첫 강의에서 강사님이 질문을 던지셨다. 호스피스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대답한 사람들 대부분이 말기 환자들이 죽음을 잘 준비하도록 돕는 일이라고 말했다. 내 생각도 다르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는 마지막인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강사님은 ‘삶’의 완성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이어 가셨다. 환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온전히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호스피스라는 말에 어렵잖게 동의할 수 있었다.

호스피스에 대해 배우면서 「자비로운 삼위일체」라는 인상적인 작품이 생각났다. 삼위일체 하느님의 시선이 심하게 다쳐서 죽어가는 한 인간에게 머물고, 각 위격이 고유한 방식으로 그 사람을 돕고 있는 것을 형상화한 점토 작품이다. 의사, 간호사, 복지사, 요법 치료사 그리고 영적 돌봄을 하는 이들이 협력하여 환자를 돌보는 호스피스가 하느님께서 인간을 돌보시는 모습과 닮았다.



관련된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통증을 완화하는 의료적인 면을 제외하고 호스피스 기관에서 환자와 가족들에게 제공하는 모든 ‘돌봄’은 아직 아프기 전에, 말기 환자나 그 가족이 되기 전에 모든 사람이 스스로 적용해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삶을 돌아보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맺힌 마음을 풀어내는 것. 마지막일지 모르는 생일과 기념일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 아직 남아 있는.. 하고 싶은 일을 시도해보고, 그리운 사람들을 만나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추억이 담긴 노래를 불러보는 것. 그리고 하느님과 화해하는 것.

가끔은 만약 내가 지금 떠나야 한다면 생에 대해 ‘안녕’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지 물어보자.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나를 지탱해주는 신념은 어떤 것인지, 내 삶에서 바로잡고 싶은 것이 있는지도. 이런 생각의 갈무리는 아직 남은 삶을 온전하고 충만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15분의 행복



원진숙 말가리다 수녀

환자 방문을 하다 보면 병실 문을 열어 놓고 있는 분들을 적잖이 보게 된다. 몇몇 분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사람 구경’을 하기 위해서란다. 별로 찾아와 주는 사람 없어 적절한 마음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으로 달래는 그런 분들에게 좀 더 마음이 쓰이고, 잠깐 인사라도 하기 위해 멈추거나, 정 바쁠 때는 손이라도 흔들며 지나가곤 한다.

C 부인도 늘 문을 열어 놓고 있었다. 사람이 그리운가 보다 하며 다가가려는 순간, 보기 좋게 쫓겨나고 말았다. 그래도 몇 번 더 시도를 해 보았는데, 인사라도 할라치면 얼굴을 찌푸리거나 눈을 흘기거나 돌아누워 버리곤 했다. 그래서 귀찮게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방문을 포기하고 말았다. 그런데 어느 날 수간호원이 나를 부르더니 그 C 부인을 좀 방문해 달라는 것이었다.

“번번이 쫓겨났는걸요.”하고 대답하자,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몇 년을 누워 사실 나를 쫓아낸 사람을 다시 찾아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으므로, 그 방에 가기 전에 기도하고, 주님께서 앞장서 들어가 주시기를 청하며 주님의 등 뒤에 숨는 심정으로 다시 그 방에 들어섰다. C 부인은 이번에는 나를 쫓아내지는 않았지만, 잔뜩 골이 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큰 침대의 반도 차지하지 못하고 누워 있는 깡마른 작은 몸! 젊어서부터 장애인이었다는 이분은 이제 노쇠하여 몸이 쪼그라들고 뒤틀리고 말라서, 어린아이의 체구 같았다.

나는 부인과 눈이라도 맞추려고 노력하면서, 그 방의 화초가 싱싱하다느니, 달력 사진의 고양이가 귀엽다느니 하며 말을 붙여 보다가 대꾸 한마디 못 건지고 그냥 나왔다. 사시는데, 요즘 고통이 너무 심해져서 그래요.”하고 설명해 주었다.

그러나 그 후부터, 열려 있는 그 방 앞을 지나가면서 손을 흔들며 웃어주거나 가끔 용기를 내어 들어가서 이 말 저 말 하면 부인은 더 예전처럼 눈을 흘기거나 돌아눕지는 않았다. 그리고 뭐라고 중얼중얼하는데, 나에게 하는 말인지 혼자 하는 말인지 알 수가 없었다.

어느 날, 그냥 인사 정도 하려고 들렀더니, 부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반색을 하며 어서 오라고 손짓하는 것이었다. C 부인 안에 이렇게 예쁜 미소가 숨어 있었다니! 그가 그토록 환한 미소를 지을 능력이 있는 줄은 정말 몰랐으므로 나는 어리둥절해졌다. C 부인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내 상태가 좀 나아지면 하루에 15분씩 휠체어에 앉아 있을 수 있대요!”

이 격앙된 기쁨의 내용이 이것이란 말인가! 가슴이 콕 메어오는 것 같았다.

“거기 화장실 문 열어 보세요. 증거가 있으니.” 화장실 안에는 휠체어 하나가 놓여 있었다.

부인은 의기양양하게 반복했다. “만일 아무 문제가 안 생기면 얼마 후부터 거기 하루에 15분씩 앉아 있을 수 있다고요.”

아, 그의 이 꿈이 어긋나는 일이 없기를!

그 방을 나온 나는, 항상 휠체어에 앉아서 살아야 하는 처지를 한탄하고 있는 많은 환자 곁을 지나간다. 저 의자에 단 15분이라도 앉아보는 것이 그토록 큰 소원인 사람도 있는데. 가슴이 저린다. 설 수 있고 걸을 수 있는 나는, 달릴 수도 있는 나는 C 부인이 그토록 갈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지닌 나는, 이것을 행복인 줄 알고 있는가?

다음 날 아침 산책길에서, 개를 데리고 천천히 걷고 있는 할아버지를 만났다. 그 길에서 가끔 보던 할아버지였다. 혼자 사시는 외로운 할아버지인가 보다, 옷차림이 남루한 걸 보니 가난한가 봐. 생각했었는데, 이날은 이 할아버지가 부자로 보였다. 요양 병원에 안 가고 아직 자기 집에서 살 수 있는 건강, 유유히 걸을 수 있는 신체, 자기 마음대로 산책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지니고 있으니.

나는 공동체가 있고 가족이 있고 친구도 많고 몸도 건강하니 그 할아버지보다 더 많은 걸 지녔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유함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내 부유함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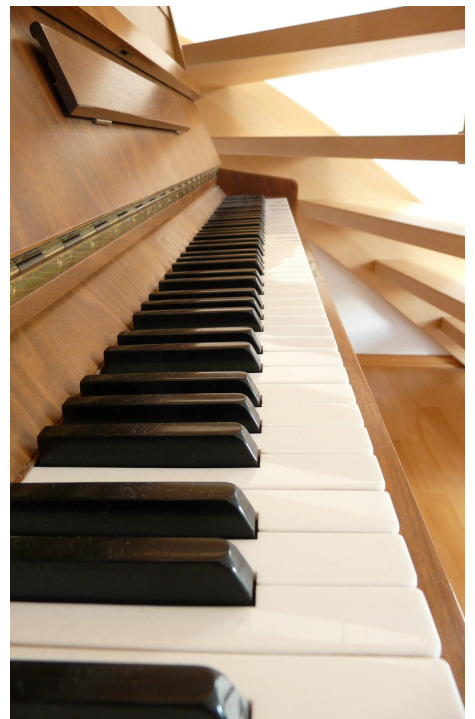
자동 피아노

뮌헨에 있는 독일박물관에는 독특한 악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여느 피아노와 별다를 것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천공 카드에 의해 자동으로 연주되는 피아노입니다. 악기 내부에서 도르래 바퀴가 돌고, 건반은 역학적으로 풀려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단추를 누르면 건반이 저절로 움직이며, 미리 입력된 멜로디를 반복하지요. 완벽한 연주입니다. 그러나 영감이 없습니다. 언뜻 악기가 생명을 지닌 듯 보이지만 사실은 생명이 없습니다. 모든 소리가 프로그래밍이 된 기계 장치에서 나올 뿐이지요. 그럴싸하지만 진짜 악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런 악기를 보면 생명으로 채우지 못하고 그저 기계적으로 맡은 일을 반복하는 소외된 삶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기계적으로만 움직일 때, 우리 모습도 그런 악기와 닮지 않았나요?

살아 있는 악기는 다릅니다. 살아 있는 악기는 자극을 해석합니다.

그러려면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들어야 합니다. 영감과 해석, 듣고 행동함. 이것이 우리 삶에 음악을 흐르게 합니다. 우리가 지닌 믿음도 자칫하면 자동 피아노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모든 일은 미리 프로그래밍이 된 대로 기계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세계가 만약 그런 자동 피아노들로만 이루어졌다면, 이 세상은 하늘의 장난감에 불과하겠지요. 영감도 해석도 없이, 기술적으로는 완벽하지만, 생명 없는 세상. 그런 곳에서는 탄식할 일도 없겠지만, 살아갈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가문비나무의 노래 중 (마틴 슐레스케 지음)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관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다른 사람 명으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받으실 분 이름으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지로후원자분들은 아래의 계좌로 자동이체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후원금은 아래 은행으로 입금자명(기부금 영수증을 받으실 분)으로
자동이체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금주 : 재) 성 프란치스코 수녀회

우리은행 072-475366-13-401 농협 100072-51-060834

담당자: 010-2821-8174 수녀원 : 02-852-0939

E-Mail : fmmhelperkor@daum.net

회원님들의 희생과 수고, 사랑으로 보내주신 후원금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 5월 1일 ~ 2024년 7월 31일까지 입금하신 후원자 명단

(재)고려문화재단 (주)모틀초경 (주)버닝하트 가정동빈첸시오 가좌동(농협) 강경아 강미현
강숙자(조정권) 강신연 강연호 강인숙 강향주 검암동빈첸시오 고대완 고승현 고승희
고월순 고은하 고재영 고지영 공창용 공해용 구옹회 권순영 권순익 권영오 금부동
금창호 길광일 김경순 김경희 김광기 김광자 김귀선 김남기 김덕철 김도상 김도영
김동현 김두리 김두환(김철형) 김득수 김득현 김명숙 김미리 김미숙 김민규 김상률
김상태 김새별 김서애 김선옥 김성애 김성옥 김성용 김성원 김수경 김순철 김시준
김애자 김연진 김영순 김영옥 김영운(손연희) 김영자 김영재(허갑수) 김영주 김영준
김영춘 김옥림 김용민 김용수 김용식 김용자(윤소라) 김용주 김용준 김유정 김인희
김잔디 김재식 김재욱 김정민 김정숙 김정애 김정웅(김명신) 김정임 김정택 김정화
김종연 김주옥 김준희 김지영 김지혜 김진금 김진숙 김진욱 김춘자 김프란체스카
김해자 김현숙(최지명) 김현희 김혜신 김호성(박정식) 김호송(윤군자) 김화자 김희재
나숙희 나정순 남가경 남보라 노미경 노병덕(권정희) 노봉근 노상옥 노석심 노인숙
노정애 당효준이순희 디딤돌4기 마전성당 명영희 청라빈첸시오 문경애 문미형
문성식 문준식 민들레복지회 민병관 민정웅 바이올가 제주이도점 박금난 박기선
박병옥(송덕규) 박병주 박선하(이옥란) 박성준도미니교 박성현 박소진 박수인 박순옥
박승민 박연애 박원서 박윤실 박은영 박은정 박은희 박인호 박재용 박정순(임현서)
박정연 박준우 박찬순 박찬주 박찬희(강동연) 박태분(최민정) 박해필 박현애 박현희
박혜윤(신상빈) 박혜윤(신유주) 박화자 박희수 박효정 박희순 밝은미래 방웅 방정석
방진 배수정 배윤숙 배장열 배철희 백미자 백성대 변복자 변태식 부산야음재속회
사랑나무치과 서덕순(서득순) 서춘자 서태진 서향란 서혜석 석상령 성영신 성영주

소재록(구곡의원) 손순덕 손은영 손은주 손정례 송경수 송명순 송순이 송영희 송정애
 송채영 송혜경 신동규 신승일 신아영 신용숙 신정동예로니모회 신주선(신유경)
 신주화 신희식 아가맘2호 안미령 안양금 안자영(조진상) 양미경 양영자 양윤석
 양윤재 양종한 양천애덕회 여은지 연수성당 연희동 영적가족8기 오말희 오복연
 오소영 오숙자 오승훈 오승훈 오영희 오옥형(최민귀) 이상혁 우영희 우혜령 원세경
 윤남빈첸시오 원당동성당 원ENG(김진식) 유경진 유경혜 유미경 유병춘 유복희
 유수민 유영재 유은분(세인부동산) 유은정 유주영(이성혜) 유채영 유춘성 유희숙
 육동배 윤규현 윤명희 윤문섭(문선미) 윤미숙 윤보미 윤봉수 윤순자(양정희) 윤순희
 윤여영 윤정미 윤정희 윤한희 윤현숙 이갑수 이건호 이경석 이경재 이계호 이관훈
 이광진(홍기원) 이광희 이기혁 이남순 이동준 이동현 이미란 이민희 이병철 이복순
 이상문 이상옥 이선영 이성구 이성남 이성엽 이성호(조봉례) 이승욱 이승은 이연실
 이영복 이영애 이영옥 이영혜 이옥자 이원순 이윤신 이윤옥 이은주 이인권조혜리
 이임수(송재용) 이재옥 이정란(최윤) 이정숙 이정원 이정준 이정하 이정희 이종옥
 이지인 이태금 이필단 이항남 이해일 이현순 이현준(이창석) 이혜미 이혜숙 이홍식
 이희주 인동에프 인용석 인천교구 인천석남빈첸시오 인천재속프란 인혜정 임승욱
 임윤섭 임정태 임지원 임혜숙 임호 장민정 장민호 장세옥 장영문 장영표 장원태
 장현아 전순임 전순자 전은희 전주란 전충엽 전해향 전해향 전화월 정강호 정경원
 정경필 정광진 정동락 정명국 정미영 정미희 정성민 정소영 정영숙 정은희 정인순
 정재영 정재훈(정지호) 정진명 정진숙 정찬영 정혜경 정희파키스탄 조건희(최후선)
 조규진(조남섭) 조금자 조상위 조석금 조선희 조성자 조정희 조진면 조현주 조혜영
 조화숙 조희공 조희무 주)가나스틸 주연아 중앙고속영년회 지정희 진숙인 진신아
 천정원 최규범 최금영 최두진 최미양 최선애 최성순 최숙규 최순애 최영남 최옥자
 최원단 최원철 최은실 최인석 최일순 최재석 최정선(윤각의) 최지은 최향미 최효순
 추상식(장형숙) 추영숙 추종현 태계남 파키스탄박진 평화장터 하늘병원 하옥경
 한국순교성인빈첸 한규영 한기훈 한순옥 한순희 한영미 한옥선 한진경 허순자
 한효정(권오현) 허재숙 허정자 현경미 홍말숙 홍명숙 홍미자 홍민선 홍민희 홍성란
 홍세아 홍승희 홍은숙 홍익기 황경희 황미순 황영곤 황인복 황혜숙

